

목 차

2-1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1 -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
2-2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2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5
2-3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3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
2-4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4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11
2-5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5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14
2-6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6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17
2-7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7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20
2-8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8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23
2-9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9 -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26
2-10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1 -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29
2-11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2 - 진실한 교회	32
2-12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35
2-13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 직업과 사명	38
2-14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41
2-15	하나님의 나라와 죄 - 하나님의 나라와 죄	44
2-16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 -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신앙	47
2-17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1 -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50
2-18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2 - 역사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	53
2-19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 1 -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56
2-20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 2 - 물질에 대한 청지기 (속건제)	59

2-1.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 5:1-10)

In the Grip of Grace의 의미 : 맥스 루케이도는 ‘In the Grip of Grace’라는 책에서 다섯 형제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과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웃을 감시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합니다. 셋째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 땅에서의 자기만족을 삶의 목표로 합니다. 넷째 아들은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기를 바라며,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아들의 경우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다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는 자입니다.

두 가지 삶의 모습 :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끝에 죽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 주님의 산상수훈은 비록 3장 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7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온전하게 배우게 됩니다.

산상수훈과 십계명의 서문 : 산상수훈의 서문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는 부분을 대할 때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 20:1)"라는 서두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시고, 십계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받기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기 때 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계명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은혜가 빠진 계명 : 안타깝게도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계명을 오히려 가리는 계명으로, 삶에 복을 주기 위한 계명을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계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계명을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모세 : 마태 기자가 산을 언급한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서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던 것을 연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새로운 모세이셨습니다. 그 백성을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받는 생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홀로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보내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더 나은 사람’보다 ‘새 사람’ : 산상수훈의 본질은 도덕규범과 같은 이 가르침들을 잘 지켜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 그로 말미암아 삶에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겸손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삶 : 산상 수훈의 삶을 사는 자는 내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삶에 대해 겸손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그리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바란다고, 약자의 삶이거나 비겁한 자의 삶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헌신하고, 더욱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의 삶은 이미 영생을 향하고 있다.”

질문 1 산상수훈의 말씀 중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가르침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2 맥스 루케이도의 "In the Grip of Grace"에 나오는 다섯 아들 중 나는 어떤 아들이라 말할 수 있나요?

질문 3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4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2.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 5:3)

두 가지 묵회 : 묵회는 복을 따르는 묵회(축복, 개인구원, 내세 강조)와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묵회(사명, 사회구원, 현실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에서는 전자인 축복 중심의 묵회가 대세이며, 또한 우세합니다.

‘복’이라는 유혹 :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복입니다. 지금이나, 주님이 계신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줘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과 하나님의 나라 : 주님의 말씀에는 복과 하나님 나라가 조금도 갈등 없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주님께서서는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을 심히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 :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을 인정하고,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 :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축복을 바라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 : 누가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비록 외적인 것은 가난해도 심령은 부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

문입니다. 복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 속에 있는 축복 :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왕국(세상의 가치, 거짓, 이기주의, 죽음, 어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왕국(세상의 가치, 진리, 공동체, 생명,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가난이 있고 동시에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기에 가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갖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의 결단도 아니라 일평생의 결단입니다.

성도의 사명 :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성도 되게 합니다. 그러나 복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 : 사람의 참된 가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았고, 헌신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이 때 그들은 자신의 직업, 더 나아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주를 좇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가진 복을 더 많이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필요한 것인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나의 목적과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 우리는 심령이 변하는 영적인 변화를 맛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계약이 회복되어 실제 삶에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현 세상을 외면하지 말고,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1 내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2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 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면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봅시다.

질문 3 내가 바라거나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4 그것들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질문 5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품어야 할 영역은 어떤 것이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하겠습니까?

2-3.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악한 세상, 악한 교회 : 요즘 갖가지 매체들을 통해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러한 글들에 격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말씀의 본래 뜻을 깨닫고, 회복시키시는 것에 집중한다면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애통' : 현대인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본인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마치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척,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척 하는 것이 현대인의 덕목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애통할 일이 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복 : “항상 애통하십시오. 쉬지 말고 애통하십시오. 범사에 애통하십시오.” 애통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애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고, 또한 남이 애통해 하는 상황에서 같은 마음으로 애통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애통과 회개 : 성경에서 애통은 죄에 대한 회개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51:17)”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지내는 사람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인 짐승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직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도리어 죄를 언급하는 것이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생각과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모든 면에 스며들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죄에 대처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합리화, 타인과 환경에 책임전가, 거짓으로 포장, 남을 공격하는 등의 다양한 자기보호기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죄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즉 죄를 인정하고, 책임질 때에 비로소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세 :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멀리하지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고, 때론 비난과 정죄의 눈빛을 감당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축복 : 인간은 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요,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반대로 만일 사람이 죄를 짓고도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영혼이 나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고통 중에 애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애통은 용서의 시작 :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애통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기대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복 :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입니다. 우리말로 위로라는 말의 본래 뜻은 '함께함'이라는 말과 '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인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1 '애통하다' 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2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애통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애통함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그 이유가 '죄' 와 관계있는 것입니까?

질문 3 애통함은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의 감정을 나눠봅시다.

질문 4 죄와 관련하여 애통함으로 바라보아야 할 내 삶 영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또한 내 주변과 사회, 국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애통해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5 애통함에 관한 나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2-4.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 :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심령의 가난함을, 둘째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참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온유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열매 :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구원의 깊어진다는 것은 온유함이 깊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온유와 분노의 관계 :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분노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막3:5, 마16:23)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유하시지 않으신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9)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함이 성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온유한 사람은 악한 일, 거짓, 폭력, 사탄의 역사에 분노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 : 온유한 사람은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해야 할 때에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이익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성령으로 다스려진 분노 : 온유함은 선천적 온유한 성품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생각, 기질, 감정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성령에 따른 다스려진 분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봄 :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결국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함은 성도의 근본 마음 자세 : 성도의 온유함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았을 때,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죄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온유란 것은 단지 인격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속된 것임을 상징 :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내가 땅을 정복해서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속자로서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로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맡겨주신 땅의 거룩하신 사명자로 날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갖는 진정한 복 :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상속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함 :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는 상속자요, 내가 가진 것은 그분의 뜻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온유의 마음을 가질 때 삶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마음, 이 귀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1 어떤 때 분노를 느끼고, 분노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질문 2 불의한 일에 대해 의분(義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질문 3 불의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이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질문 4 불의한 일에 관하여 인터넷 상의 댓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삶의 현장에서 “예언자적 분노”를 느낄 때 어떻게 온유함을 실천하시겠습니까?

2-5.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계약과 언약 : 언약이 기반이 된 신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역시 언약, 계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창 9장), 아브라함과 3복 언약, 동서남북 언약, 후사 언약,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창 12, 13, 15, 17장),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강화시켜 주시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 6:7)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고전 11:25)

성경은 계약서 :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렘 31:31)” 성경은 타종교와 달리 인간의 소망을 기록하거나, 종교를 창시한 교주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외적인 의, 내적인 의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법, 규범, 도덕,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외적인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동기나 근본, 속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의가 완벽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며 나아가서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것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나의 외적인 의로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친밀한 경험, 그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의를 가지게 됩니다.

의의 확장은 이웃과의 관계 : 우리의 의는 나를 드러내야 위한 의나 남을 정죄하기 위한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의이어야 합니다. 십계명에서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의는 참된 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굵주림과 목마름 : “주리고 목마르다”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욕구들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이 세대에 의(관계)에 대해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며, 주리고 목말라하는 자세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계약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계약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가도 치러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 계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서약하셨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신실함 :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약으로 맺은 백성들을 끝까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계약 : 성경의 계약은 지키지 않으면 벌하시기 위한 계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지속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 : “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이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갈구하며,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삶은 복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1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의로운 사람’ 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에 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2 ‘의로움’ 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3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실하지 않을 때조차 신실하심을 지키시며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질문 4 공동체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히 헌금하고, 정해진 예배시간을 잘 지키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은연중에 그들보다 우월해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혹시 있는지 잠시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태도는 무엇일지 나눠보도록 하자.

질문 5 하나님과 신실함의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로 살아가는데 바로잡아야 할 관계나 생각,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6.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팔복 - 산상수훈의 서곡 :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해하기도 지키기도 어려운 산상수훈 :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산상수훈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말씀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먼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 이 말씀은 자신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지킬 수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산으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축복 - 무엇을 하든 먼저 목표를 분명히 설정 : 목표 없는 삶만큼 고통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존귀하게 할 만한 바른 목표여야 합니다. 성도에게 그 바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함 :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와 세상을 넘어서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을 따라가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축복 - 어려움을 바르게 해결하는 길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 목표는 가지고 있다고 다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 어려움을 바르게 해결하는 길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방법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줄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 - 온유함의 복은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 성경에 온유함이란 결코 약한

자를 말하거나, 무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어려움을 이길 바른 방법을 가지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 축복 - 신실함 :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대상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찾게 되는 ‘신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축복 - 공홀히 여김 : 히브리어로 ‘mercy’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피부 안에 들어간다,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홀함이란 이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말하며,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홀히 여기는 자에게 공홀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서로를 공홀히 여겨야 함 :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공홀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남을 공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정죄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세상을 품고, 세상과 함께 서로 공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공홀함은 하나님의 마음 :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공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요, 회복하는 종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질문 1 나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 등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공홀을 베풀어 준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질문 2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니까? 긍휼을 베푸는데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질문 3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질문 4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긍휼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5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조원 각자의 삶에서 함께 긍휼 실천 action을 취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7.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 **하나님을 보는 것 - 인간의 갈망** :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하여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성도의 축복 - 하나님을 봄, 그리고 새로운 관계** : 귀로 듣기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했을 때는 관계가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그 관계는 매우 구체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한번이라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관계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뒤에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기 42:5)” 고백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갑절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 **우리와 마음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청결한 마음이 필요** :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더 깊은 관계를 원하여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없이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노력이 청결한 마음 없이 드러질 때 다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마음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요. 과부의 두 랍돈 이야기에서처럼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중심을 귀하게 보십니다.
- **마음 = 속사람 전체** :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고 존재의 중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 **마음의 청결 - '빈' 마음이 아님** : 청결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렘 17:9)”라고 하십니다. 먼저 내 마음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인지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내 역한 모습으로 인해 힘들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치료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열반(涅槃)의 모든 것이 ‘없는’ 상태,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청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따라 ‘유’를 존속시키되, 더러워진 ‘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리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결한 마음 -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 : 청결함이란 헬라어로 ‘카타로스’(καθαρος)인데 ‘빛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빛을 갇아줌으로써 빛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죄의식과 타락에서 자유하게 되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 **청결한 마음 -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마음** :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 1380-1417)의 말처럼 “악이 역사하면 가장 먼저 악한 생각이 다가옵니다. 다음으로 그 생각이 상상력을 통해 점점 확장됩니다. 세 번째는 악한 행동이 다가옵니다. 네 번째는 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영적 싸움을 준비하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거룩하신 주심을 바라보며 항상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능력입니다.

질문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일인데 다른 것들(동기나 환경 등)과 섞이면서 관계나 사역이 어렵게 되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봅시다.

질문 2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3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청결한 삶을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부패하고 더러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 4 나의 안에 죄가 들어와 생각으로 점점 확장되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려고 움겨지려고 할 때 이를 인지하고 멈춘 기억이 있습니까? 어떻게 인지하였고, 어떻게 멈출 수 있었습니까?

질문 5 ‘마음이 청결함’에 대해 나눈 나의 경험과 오늘의 말씀이 만나는 과정에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나 결단한 것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2-8.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 5:9)

shalom - 성경의 시작과 끝 : 성경은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는 “모든 것이 좋았다.”는 샬롬(Shalom, ¹shalom), 평화의 선포들로 시작합니다.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며, 조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첫 샬롬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그리며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한 칭호 :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은 ‘칭호’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때 화평케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사역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역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역사 속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회복의 사역 :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이고, ‘평화를 만드는 종교’ (Peace Making Relig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만물을 서로 갈등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만물들이 상처를 입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관계가 상처를 입기 시작하며 평화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화가 깨어진 땅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시와 엉덩이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상처난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는 진정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모든 사역과 삶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찬-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 :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만 평화롭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에서 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평화를 가꾸는 사람들로서의 사명 : 이 땅을 그냥 두면 저절로 평화가 자라지 않습니다. 대신 가시가 생기고 엉덩이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부지런히 가꾸어야 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가꾸는 일,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평화를 위해 세워진 기관입니다.

평화의 세 가지 조건-자유함, 하나됨, 그리고 의 :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평화는 대부분 강요된 평화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지식의 정도에 의해, 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다스리며 문제를 억압해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거기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이뤄진 평화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는 하나됨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는 의를 동반해야 합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근원적으로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불의를 용인하다보면 결국에는 그 불의로 인해 평화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 호레이쇼 스페포드 (Horatio Spafford, 1828-1888)의 예화를 통해 평화가 완전히 깨어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외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지만,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에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은총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화의 사명은 이 땅을 살리는 사명이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1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000” 라고 불러봅시다. 그 칭호에 내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질문 2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개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 공동체 내에서 화평이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 4 성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보고, 공동체 내의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해 봅시다. 본인만의 평안과 축복의 문장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축복해주세요. - 예시 : 살롬, 000 형제님. 주님의 완전한 평화가 당신과 가정에 깃들길 소원합니다.

질문 5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2-9.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의를 위하여 핍박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마 5:10-12)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정된 박해 :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마음과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성도들은 세상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핍박이 아니라 지속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받는 박해 :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삶을 닮고, 주님의 뜻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닮고... 이것이 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주님처럼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에 박해를 받는데 그러한 박해가 복이란 뜻입니다.

‘다름’에 따른 박해 : 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박해 받을 일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소명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듯합니다. 더구나 다름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더 어렵게 되고 나중에는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성도와 박해 :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 5:12)” 이 말의 뜻은 주님의 제자들도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선지자들입니다. 때로는 수없는 박해 가운데서도 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시대를 다르게 살았습니다.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당시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했고, 심판을 예고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

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는가?

박해에 대한 태도 : 기뻐하고 즐거워함,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 : 본문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불성설인 듯하지만, 주님의 제자라면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스승으로서 본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삶에서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분노나 보복의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적대감, 거짓, 비난에도 주님은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박해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함 -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 : 하늘에 우리의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 가운데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 5:12)” 또한 박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시대는 마지막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를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부름 받은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진실된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릴 종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1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나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질문 2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 란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 3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 는 누구인지 나누어 봅시다. 또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 받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질문 4 의를 위해 헌신하다가 받는 박해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5 핍박 받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켜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의” 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2-10.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롬 1:17)

여호사밧의 기도

- ① 오직 하나님께 기도 : 여호사밧은 나라가 곤경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 ②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 :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 ③ 기도는 선행이 아닙니다 : 덕이나 선행을 쌓는 것 자체가 구원과 무관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④ 은혜를 힘입는 죄인의 기도 :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⑤ 제사장의 기도 :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기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 ⑥ 마음에서 나오는 단순한 기도 :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전개 :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신학 논쟁을 내걸고 공개 토론을 요청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기독교의 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개혁 전 개혁가들(Pre-Reformation Reformers) : 영국의 위클리프(John Wycliffe), 보헤미아의 후스(John Huss), 프랑스의 왈도(Peter Waldo) 등의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 구원의 문제, 교황권, 면죄부와 같은 교회의 근본과 존재 이유, 목적과 관계된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 ① 회심사건 :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일로 큰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됨.
- ② 구원에 대한 영적인 갈등 :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고행길을 자처도 해보지만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롬 1:17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선행,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

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③ 면죄부 판매에 항거 :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며 면죄부를 판매.
- ④ 95개조 반박문 : 면죄부와 교회의 근본적인 잘못에 대해 ‘95개 조항’을 만들어 공개 토론을 요청
- ⑤ 이단논쟁 : 신부 에크(John Eck)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국민은 성경보다는 교회의 결정에 권위를 두는 천주교에 반대하며 루터를 지지하였고 종교개혁을 강행하게 됩니다.
- ⑥ 종교개혁의 확산과 개신교의 형성 :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로 번져 나가면서 결국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은 개신교에 동조했고, 칼빈(John Calvin, 1509-1564)과 같은 수많은 개혁가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1,5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때 그 교회의 모습, 성령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원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 교회는 믿음과 은총과 말씀으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세상과 결탁한 교회

- ① 세상의 가치관을 도입함 ② 성경과 회중의 삶을 분리시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짐

교회는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함 :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인간의 공로가 믿음을 대신하지 않도록,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하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켜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질문 1 본인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첫인상)의 느낌을 적어보세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3개씩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단어 :

부정적인 단어 :

질문 2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3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질문 4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은총’ , ‘오직 말씀’ , ‘오직 믿음’ 이 현재 교회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까요?

질문 5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11.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진실한 교회”(마 23:13-37)

하나님의 기대 : 주님께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형식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떠난 문자주의, 성령이 없이 가장된 경건주의에 대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주님의 분노가 아닌 사랑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들((이사야, 예레미야))이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재앙을 피하라고 간절히 외칠 때 사용했던 동일한 표현을 가져와서 사용하신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식과 역할감당 : 칼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에 따르면 “외식”이라는 말은 사람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수 천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가면(persona 페르조나)을 쓰고 관계를 유지해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눈앞의 사람들을 더 신경쓰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은 이를 엄하게 꾸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의 외식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역할극을 행해왔으며, 또한 하나님께도 하나님 역할을 하시도록 은연중에 강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로마극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주후 70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신앙의 진실함 : 신앙에 진실함이 결여될 때 성전에서의 모든 활동들(예배, 찬양, 헌금, 전도, 봉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외식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진실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함 :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고, 진실함이란 이러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실수와 훈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진실함으로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함, 겸손함, 솔직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진실되지 못함과 거짓말 : 진리는 반드시 진실됨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오히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교회에 대한 5가지 질문

- 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는 사명을 강조하고, 의로움을 강조하고, 섬김을 강조하고, 희생을 강조합니다.
- ②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기관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도가 의지할 능력은 성전에 계신 성령님이지, 성전의 금(金)은 아닙니다. 이 공간에는 기도 소리가 넘쳐나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세상이 놀라 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 ③ **교회는 항상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형식들은 내용의 표현이요,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내용들은 형식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내용)은 구제, 봉사, 희생, 정의, 헌금, 정직, 양보 등의 행동(형식)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 ④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라면 우리는 불의와 고통 앞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 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진실함으로 진리를 따르셨고, 그래서 그 진리는 곧 주님 자신이 되었습니다. 보이기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거짓을 물리치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을 따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합니다.

질문 1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질문 2 교회의 섬김이 끝나고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달라지는 모습은 없나요?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평가는 어떠한가요?)

질문 3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4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진실하게 응답하고 실천해야 하는 다섯 가지 사실을 정리해 봅시다.

질문 5 교회가 더 진실되게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12.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마 16:24-28)

십자가와 기독교 : 성도들이 갖는 가장 깊은 갈등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 간의 간극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주된 이유도 교회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이 간극을 크게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길이 되시는 예수 :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만나기 힘든 분도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시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한 십자가 :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길, 즉 사단의 길들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팔복 :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 애통해 하며, 죄인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세상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이 길을 통하여 화평을 이룹니다.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의 두 가지 문제 : 첫째는 평신도라는 의미의 축소적용입니다. 평신도는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둘째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은 힘들다고 생각하여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길 :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그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자기부인의 길 : 자기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나를 드린다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수록, 우리를 주께 올려드릴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주께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자기부인의 의미-온유함 :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분노, 보복의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마음, 육신의 혈기 등을 버리며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온유함을 가질 때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회복 :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회적인 장벽들, 종교적인 장벽들, 개인적인 장벽들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로써 죽어가는 영혼에 새 생명이 주어졌고, 원수와 같았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1 당신은 어떤 길을 걷길 좋아하십니까? (마른 길, 젖은 길, 아스팔트길, 흙길...)

질문 2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질문 3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4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질문 5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새롭게 결단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한국 교회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십자가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2-13.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직업과 사명)

“주께 하듯 하라.” (느 2:1-6, 엡 6:5-8)

느헤미야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통치하는 나라인 페르시아에서 아삭사스다왕을 위해 술관원(고위 관직)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자기 조국의 비참한 현실과 본인의 안락한 현실 사이에서 가책을 느끼고, 그의 조국을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며, 어찌보면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거룩한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의 전문성과 영성 :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일을 어떻게 결부시키느냐 하는 것, 즉 일의 전문성과 영성을 연결시키는 것은 신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일에 대한 나의 준비됨이며, 영성이란 일에 대한 나의 신앙고백이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위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① 전문성위주의 해결책 - 사업은 사업, ② 영성위주의 해결책 - 신앙우선주의, ③ 신앙, 일 둘 다 포기하는 등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 전문성과 영성의 조화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께 하듯 하라! - 성도를 향한 부르심 : “주께 하듯 하라!”는 말에는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일이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라는 명령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듯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 - 선한 것 : 기독교의 혁명적인 관점 중에 하나는 일(노동)을 선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창조 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연의 통치와 명명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케 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으셨음을 말해줍니다. 한 마디로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소명으로서의 나의 일 : 과연 하나님이 청소부와 구두닦이들보다 학자와 시인들을 본질적으로 더 기뻐하실까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일을 주께 하듯 겸손하게 할 때 영적인 일이 됩니다. 일을 단순히 직업으로 생각하면 직업은 자칫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소명으로 생각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길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일평생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성실함으로 대해야 할 나의 일 : 두려움과 떨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이러한 자세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을 다해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일하신 주님과 사명자로서 성도의 삶 :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음식 드실 겨를도 없이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장소와 사람의 차별없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의 사명자로 이 땅의 모든 분야에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책임 있게 반응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질문 1 직장생활(삶) 하면서 신앙(양심)이 갈등하게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2 본인의 자녀가 직장생활(삶) 하는데 신앙양심상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할 때에 선배로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3 성경은 일(노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질문 4 본문에서는 일과 신앙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현재 나의 일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때론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2-14.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막 9:19-29)

성령의 역사와 성도의 삶 :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끝이 났고, 구속의 역사도 마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성령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본질과 목표, 그리고 역동성 : 성령의 본질은 관계 맺음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목표는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역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과 귀신들린 아이 : 누구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인간의 모든 흔적들은 사라지고, 오직 신성의 영광만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당시에 귀신들린 아이 같은 존재는 가장 비천하고, 저주받은 생명, 함께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것은 주님 스스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사람과 함께하셨습니다.

믿음의 말, 변론의 말 :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방식(헬라의 변론 문화)으로 변론한 것에 대하여 꾸중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만 의지하는 믿음 없는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고, 그의 계시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살릴 길은 변론이 아니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 : 아이의 아버지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귀신은 떠나고, 아이는 회복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

는 회복과 화해의 역사이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인간의 손을 잡고 화해하시는 역사입니다.

과학의 과정과 성령의 역사 과정 : 과학은 문제제기→가설→실험→검증의 과정을 통해 주관적, 감정적, 영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논리와 객관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에도 논리적인 접근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으며,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에도 논리적 과정이 있습니다. 갈등(문제제기)→숙고(말씀, 기도, 사 람통해)→깨달음(하나님의 음성듣기)→결단(존재의 헌신)의 단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기도 :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반응 중에 하나는 기도인데,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고, 생명을 회복 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1 당신은 성령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 / 색깔 / 온도 / 느낌이 떠오르나요?

질문 2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며, 어떠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질문 3 성령의 역사는 어떤 순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가요?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와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질문 4 성령의 역사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인간의 손을 잡고 화해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화해의 역사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무엇일 있을까요?

질문 5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14.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막 9:19-29)

성경의 중심주제로서의 죄 : 죄는 성경의 중심주제(창조, 구원, 죄, 그리스도, 교회, 종말) 중 하나이며 다른 주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죄라는 주제에 대한 회피현상 : “방구 편 놈이 성낸다.”라는 말처럼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피와 전가의 방법으로 부정적인 것들과 얽히기를 싫어합니다. 또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이 심각함, 무거움보다는 재미를 더 높은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죄란 주제를 다루는 것을 꺼려합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관점 : 성경은 죄를 가볍이 여기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오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이 죄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 안에 실제함을 인식시켜주기 위함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드릴수록 사회는 바로 서고 교회는 부흥하였다.(청교도의 예) 반면 죄에 대하여 소홀할 때 죄의 세력이 왕성해지면 사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자유주의의 성장과 1,2차 세계대전의 예) 그래서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는 다시 죄의 심각성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다시 인정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 : 다윗의 범죄는 다윗이 가장 흥왕했을 때 일어났습니다.(7:1) 경제적 성황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둔하게 만들었고, 레위기 정결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간음(바세바와 동침)과 살인(우리아 죽음)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단의 죄에 대한 지적으로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듯 죄에 대한 언급

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존귀케 하기 위함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통한 죄·인간·하나님의 관계 : 탕자이 이야기는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해 집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은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는 본인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가증한 동물) 마지막에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게 되는 고백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었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다시 존귀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를 떠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 :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거나 약해지면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의 심각성과 잔인함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내 마음 속에 죄악이 깨달아지면 이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떠난 발걸음은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은총과 축복도 우리의 것입니다.

질문 1 한 주 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2 사람들은 왜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혹은 당신이)이 취하는 행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3 죄에 대해 우리가 민감할 때, 사회나 교회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또는 일어나겠습니까?

반대로 죄에 대해 우리가 둔감할 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들을 찾아 이야기 해 봅시다.

질문 4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질문 5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봅시다.

2-16.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

“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신앙 ”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 소(小)계시록이라고도 불리고,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 종말에 대해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종말신앙의 중요성 : 종말신앙은 창조, 구속, 죄,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기독교의 중심 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은 우리가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소망, 새로운 능력을 주기에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말신앙의 두 차원 : 종말신앙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주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입니다. 우주적 차원이라는 말은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며, 개인적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목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신앙은 역사적 신앙 : 성경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구원의 드라마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역사성을 잃어버릴 때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사명보다는 축복을 강조하게 되고, 의로움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말의 때는 이미 그리고 아직! :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그때에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거짓 종말론을 분별하기 : 주님의 때에도 거짓된 종말론은 있었습니다. 거짓 종말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길을 잃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나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깨어 있어 항상 종말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신앙 : 종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헌신할수록 이 땅에 구원의 역사는 더욱 힘있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맡은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입니다 :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종말에 대한 신앙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닙니다. 이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질문 1 종말(終末)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질문 2 다미선교회나 영생교 등 잘못된 종말 신앙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소에 종말 / 죽음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계시나요?

질문 3 본문에 나오는 종말 신앙의 두가지 차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 4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은 ‘이미’ 와 ‘아직’ 의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질문 5 참된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상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본인의 신앙고백문을 작성해 보세요.

2-17.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1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렘 29:4-7, 행 3:1-10)

역사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안에 계시고, 역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요, 터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의식 :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자기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초한 역사의식이 그들에게 강한 정신을 가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에서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이, 독일 나찌 제국이 그들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유대민족을 한 공동체로 택하셨다는 굳게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서의 역사 :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나, 성도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나라도 뺏기고, 포로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고통의 기간과 포로로 지내는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입니다.

의미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 역사에는 의미 없거나 쓸데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부끄럽거나, 비참한 역사의 흔적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뜻대로 세상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사건에 그의 뜻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의 뜻과 개인의 삶 :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도 그와 같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의미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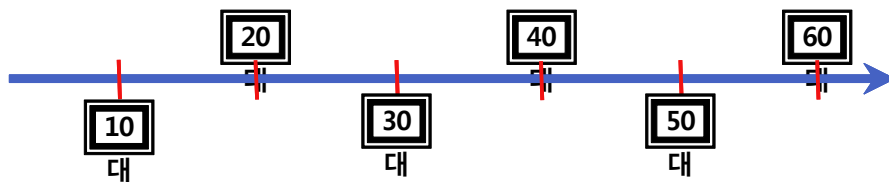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관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민역사 :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에서 산 것보다는 밖에서 산 세월이 더 긴 민족입니다. 2,5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간직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역사관과 성도의 역사관 : 세상은 온통 잘못된 역사관(공산주의, 투쟁, 진화론, 생존경쟁, 적자생존, 자연파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상의 역사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성도로써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 역사를 보는 올바른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과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질문 1 연령대별 나에게 일어나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2 본인 인생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마다 선택의 기준은 보통 무엇이었나요? 즉, 나의 연령대별 인생의 주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我, 물질, 가족, 사랑, 상황...)

질문 3 전쟁과 피로 물든 이스라엘의 역사, 때론 나라를 뺏겨 포로가 되기도 하고, 대량살상의 대상이 되어 민족의 존속이 위협을 받기도 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질문 4 성경은 한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와 만나게 되는 곳, 사건,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 5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요?

2-18.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2

“역사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 (시 67, 마 13:31-32)

오늘의 시대 : 지금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변화의 범위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변화를 겪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에 따른 혼란과 불안 :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변화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이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역사의 방관자가 되어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또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고 미미하지만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무리였고, 로마제국(독수리는 로마 상징)은 그들에게 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300년 만에 초대교회 기독교는 로마제국이 도리어 깃들게 되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씨와 새가 갖는 새로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씨가 자라매 새들이 깃들일 것입니다.” 새는 씨를 삼키려 했지만 씨는 나무가 되어 새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방법입니다. 이제는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면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악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것이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헌신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그 소망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충성스런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1 오늘날의 시대를 사람들은 보통 무슨 시대라고 하나요? 개인적으로 본인은 어떤 표현에 동의하는 편인가요? (세계화 시대, 지구촌화 시대)

질문 2 오늘의 시대는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는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질문 3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4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우리와 ‘동력’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도의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질문 5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교회)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2-19.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 (청지기)

“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시 127:1-2, 마 6:19-21)

『정의란 무엇인가?』 : 저자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작용하고, 그 관점에 따라 결정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법이나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모든 생명이 불의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해방되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땅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정의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과 돈의 문제 : 신앙인은 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돈의 문제는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돈을 바르게 보고, 바르고 쓸 줄 알아야 삶과 신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과 삶 전체가 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돈에 대하여 두 가지 정리가 필요

① **돈의 의미와 중요성** :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거하실 자리(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말씀처럼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증거로 중요하고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삶의 장식이 될 뿐입니다.

② **돈을 버는 목적** : 돈을 버는 목적에 자신의 소망을 이룸, 이웃으로부터 존경, 삶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의 개인의 감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기쁨과 감사로 확장되어 가야합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이 주는 재물(돈)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

- ① 전통적 가르침 - 탐욕을 품지 말라 :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재물을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탐욕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망치고 모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무엇보다 탐욕이 개입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재물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간에 탐욕이 개입되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시대가 “탐욕의 시대”이지만 성도는 탐욕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 ② 악순환-허무와 염려의 삶 : 탐욕의 노예가 되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찾아오고, 재물을 숨겨두면 도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은 허무해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염려가 가득한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 ③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물 쓰기 :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삶을 말합니다. 재물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허무와 염려의 악순환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질문 1 나에게 ‘돈’이란?

질문 2 살아오면서 돈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였던 경험이 있나요? 돈의 사용에 있어서 본 인간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질문 3 본문에서 말하는 ‘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질문 4 본문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봅시다.

질문 5 하나님의 나라 성도로써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2-20.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 (청지기)

“ 물질에 대한 청지기 (속건제) ” (레 5:14-19, 눅 9:21-24)

속건제(Guilt Offering) : 번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이고, 소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삶으로 응답하는 제사이며, 화목제는 서로 화목해야 하는 제사,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닌 성물을 잘못 다루는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기에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성물을 잘못 다루었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자칫하면 성물이 우상화 될 수도 있기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막과 거룩의 의미 - 새 창조 : 성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의 거룩함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성막은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중심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막은 단지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합니다.

성막의 아름다움, 거룩함, 영광스러움 : 성막은 백성들이 온 정성을 다해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아름답고, 거룩하며,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드나드는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 성막에 담겨진 ‘거룩’은 특권이냐 독점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섬김의 도구, 헌신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만 존귀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존귀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늘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물의 목적과 우리 시대 탐욕의 문제 : 성물의 목적은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과 이 시대는 탐욕으로 물들어 성물도 더럽혀졌습니다. 따라서 속건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물의 거룩함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 자체에 있다면 성물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물은 그 자체로는 다른 물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물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 문입니다.

만물도 포함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그리고 인간의 청지기직 : 하나님은 더러워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인 동시에 만물을 회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인간 물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물질을 바르게 돌보며 사용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만물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 : 그러므로 속건제는 물질을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제사입니다.

물건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아름다움, 목적, 생명 : 성도들이 물건에 대해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는 성물을 아름답게 지키고 회복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는 청지기의 자세, 마지막으로 생명 살리는 자세입니다.

질문 1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물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그 물건이 가장 귀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연이 있습니까?

질문 3 나는 거룩이 _____ 이라고 생각한다.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 하나님의 나라 성도로서 물질에 대하여 가져야 할 3가지 자세는 무엇입니까?

질문 5 인간 물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물질을 바르게 돌보며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기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적어봅시다.